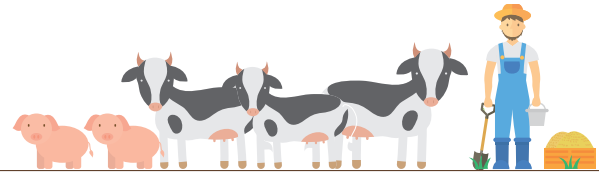


발생 후



시설하우스 관리

- 시설피복재에 부착된 황사는 동력분무기 등을 이용하여 미지근한 물로 세척 실시

* 비닐하우스의 세척 방법별 투광률 비교

분수호스
(5%증가)

동력 분무기
(8%증가)

손 세척
(12%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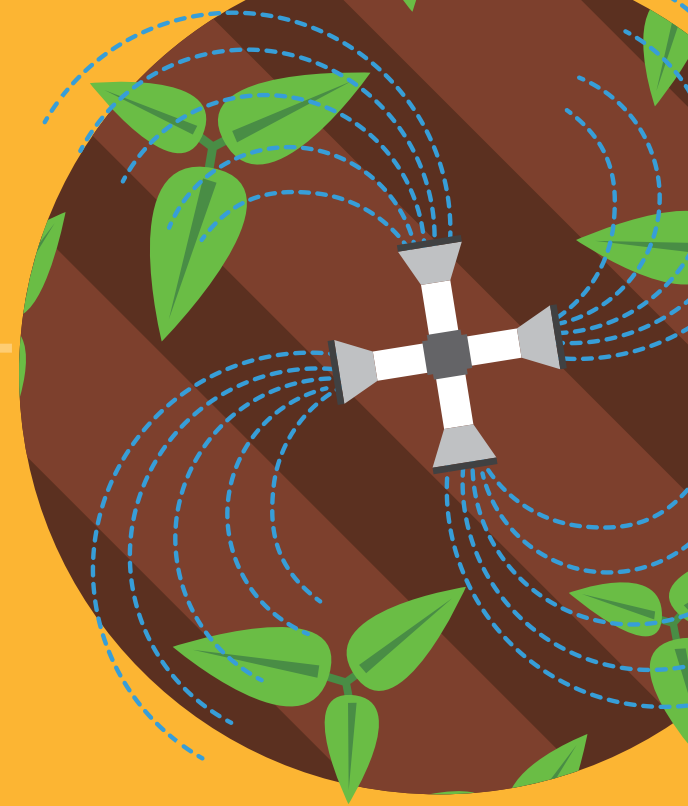
황사에 의한 비닐하우스 투광률 감소

- 효과적인 세척방법
 - 비닐하우스 : 수용성세제를 0.5%정도로 희석하여 분무 세척 후 많은 물로 2차 세척
 - 유 리 온 실 : 옥살산(oxalic acid) 4% 용액을 이슬이 내리거나 비가 온 날 뿌려주고 3일 뒤에 물로 세척

가축관리

- 황사가 끝나는 즉시 축사 내·외부, 사료급이기 및 가축과 접촉되는 기구 등에 묻은 황사를 깨끗이 씻고 소독
- 가축이 황사에 노출되었을 때에는 부드러운 솔로 털어 낸 후에 몸체를 물로 씻어내고 구연산 소독제 등으로 분무소독을 실시 (기온이 낮을 때에는 보온관리에 주의)
- 황사가 끝난 후 2주일 정도는 가축의 이상 유무를 유심히 관찰하고 이상증상을 발견할 경우에는 즉시 관할 시·군 방역 기관에 신고

봄철 불청객 황사대비 농작물 관리요령



황사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황사가 나타나기 전에 「황사발생 기상정보」를 확인하여
『황사대비 농작물 관리요령』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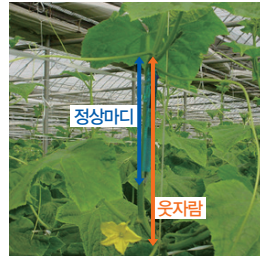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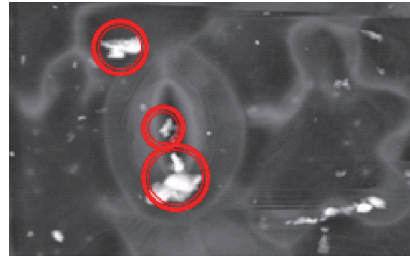
- **직접적인 영향** : 작물기공폐쇄 → 기공저항증가 → 물질대사 이상
- **간접적인 영향** : 시설하우스 표면 부착 → 태양빛 투광량 감소
⇒ 작물의 광합성을 억제하고 온도상승을 지연시켜 작물생육 장애 발생



애호박 낙과 발생



투광량 감소에 따른
웃자람 발생



황사로 인한 기공차단 현미경사진

가축에 미치는 영향



황사에 의한 환축모습

- 공기중의 미세한 먼지로 인해 가축의 호흡기 및 눈 질환을 유발할 수 있음
- 장기간 지속적으로 황사에 노출시 성장지연으로 인한 가축의 생산성 저하 유발 가능

황사피해 줄이기 '생활수칙'

- ☑ 황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습니다.
- ☑ 어린이나 노약자, 호흡기 환자 등은 실외활동을 삼갑니다.
- ☑ 외출 시에는 황사 마스크, 긴소매 의복을 착용합니다.
- ☑ 귀가 후에는 손발 등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을 합니다.
- ☑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은 충분히 씻습니다.

발생 전

- 기상청의 황사예보와 대책 방송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비닐하우스 등을 세척할 물을 확보하고 급수시설 고장유무 점검
- 동력분무기 등 황사 세척용 장비를 점검 · 정비
- 비닐하우스와 축사의 출입문과 환기창을 점검
- 야외에 있는 건초, 볏짚 등은 비닐이나 천막 등으로 덮음

발생 시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은 외출을 자제
-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의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아 외부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축사 출입 시 철저한 개인소독을 실시
- 시설 원예작물 재배의 경우 황사로 인해 일조가 부족한 경우 인공조명을 이용해 광을 보충
- 운동장이나 방목장에 있는 가축을 축사 안으로 이동시킴



황사 제거(세척)



야외 노출시 송아지 마스크 착용



일조부족시 LED 이용 장미보광재배

시설하우스 및 가축관리 요령

